▌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2호 [2010. 12] : 189~216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의 사회적 연대의 맥락연구*

-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

안 태 환**
(Ahn, Tae-Hwan)

〈Abstract〉

Estudio del contexto de solidaridad social de los movimientos Piqueteros en la Argentina

Después de los años 90, en la América Latina, nos llama la atención el surgimiento de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que quieran superar o cambiar los caracteres del regimen neoliberalista, el cual nos obliga mantenernos aislados o dispersados. Sobre todo se trató así fuerte en la Argentina con los movimientos sociales de los desocupados pobres que se llaman 'piqueteros' en la segunda mitad de la década 90.

En este estudio, he intentado de comprender y explicar cuáles motivos o contextos socio-culturales hayan movido esos movimientos sociales con la ayuda del marco teórico de 'habitus' de Pierre Bourdieu. Por ello, es muy importante interpretar la solidaridad entre la clase obrera y la media según la perspectiva de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62-A00003)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E-mail: tomy30@hanmail.net

Bourdieu debido a la sugerencia de habitus de la clase obrera y la media latinoamericana basado en la cultura oral. Porque los movimientos piqueteros argentinos surgieron no desde la clase social ni del individuo abstracto-racional de la modernidad sino de los individuos reales. Y el concepto de habitus se penetra en el cuerpo de los individuos de manera inconsciente construido desde fuera de las condiciones histórico-sociales por mucho tiempo.

Y también en la Argentina esa solidaridad ha desarrollado no sólo a superar la pobreza en sí misma sino a construir nuevas maneras sociales de los procesos de producción capitalista en forma del movimiento cooperativista, que se llama 'las empresas recuperadas por los trabajadores'. Por tanto, he analizado el proceso de cambio social en el ámbito de la América Latina relacionando el habitus con la estructura socio-cultural de la oralidad en dos sentidos; primero, se recalca la importancia de solidaridad entre las clases y la media segundo, fuerte resistencia social ante los crisis socio-económicos. Por ultimo, hay que valorar la importancia de la aparición de los nuevos sujetos sociales así como esos movimientos cooperativistas, socialización de los procesos de producción capitalista en renovar la democracia misma.

[Key Words: Movimientos Piqueteros/ Habitus de Pierre Bourdieu/ Cultura Oral/ Solidaridad/ Empresas Recuperadas por Los Trabajadores]

[주제어: 피케테로스 운동/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구어문화/ 연대/ 노동자 복구기업]

Ⅰ. 들어가는 말

90년대 중반이후, 아르헨티나에서 피케테로스(실업자)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그 절정은 2001년 12월 20일이었다. 노동자계급에 중간계급이 강한 연대로 뭉쳐 함께 기득권층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저항하였고 이를 상당부분 극복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유일 것이다. 메넴 정부의 지나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산업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실직사태로 중간계급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같은 경제적 원인이외에 문화적 원인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문화적 원인이란 의미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가 라틴아메리카 민중문화의 고유한 구조인 구어문화로 인해 더 증폭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어느 지역 어느 나라나 전근대적 맥락에서 구어문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식민지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구어문화가 생생하게 살아왔다는 독특한 점이 있다.

> 중남미에 대한 모든 담론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교양있는 엘리트와 일반민중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심연이 바로 중남미 문제의 핵심이다. 그 문제의 기원은 스페인 정복시기에 주조된 사회적 모델에서부터 시작된다. 19세기에 중남미 민중의 80%이상이 문맹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 하나는 다수의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근대 유럽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는 구어적 전통의 시골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의 유럽적 감수성의 도시문화이다(Franco 1983, 18).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지시대에 대부분의 제 3세계 나라들의 민중이 19세기말 또는 20세기 초에 근대 국가적, 훈육적 식민체제에 편입된 것과 달리 특유의 느슨한 체제 속에 오직 종교적으로만 보편성에 연결되었을 뿐이다. 근대적 학교 교육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 1910년에 학교교육을 받는 비율이 6.23%였는데 1920년에 4.93%였다(Fell 2009, 10-11). 이로써 극단적인 이중문화 즉, 글쓰기 문화(엘리트)/구어문화(민중)가 구성되어왔다. 그리고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법적, 제도적 수준에서 근대적 정치체제가 수립되었지만 문화적 맥락에서의 근대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약 200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근대체제는 부르주아 시민계급을 전제로 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세기 초까지도 이 계급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문화와 유럽 중심적 지식으로 충만한 극소수의 지식인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마치 고립된 섬 같았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민중문화는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왜냐면 구어문화의 가장 큰 특성중의 하나는 강한 공동체적 통합력을 보이기 때문이다.

> 소리와 같은 육체적 구성으로 인해 말해지는 단어는 인간의 내부로부터 온다. 그리하여, 인간들이 서로 의식의 내부 사이에, 인간으로서 소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지는 단어는 인간들이 서로 긴밀히 통합되는 그룹을 형성하게 만든다(Ong 1987, 77).

또한, 네그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성인 혼종성이 라틴아메리카 지배 권력으로 하여금 식민초기부터 탈 근대적 '삶 권력'[1]이 되도록 만

1) "신자유주의는 파시즘, 나치즘이 '질서, 훈육'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던 것과 다르다. 신보수주의는 오늘날 통제와 '삶 정치'의 논리를 시도한다. 훈육사회에서 통제사회로의 변화는 푸코와 들뢰즈에 의해 분석되었다. 훈육사회는 자본주의 축적의 초기

들었다고 주장한다. 훈육적, 근대적 정치세계와 달리 느슨한 관리의 유연성을 사회가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원주민들은 라틴아메리카 민족-국가체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메스티소로 상징되는 라틴아메리카 주민들 대부분도 구어문화의 영향을 삶의 곳곳에 가지게 된 것이다.

> 약한 민족-국가 건설의 분석은 삶 정치적 성격과 연관되는 관계를 피할 수 없다. 오직 이런 시각에서만 이 건설을 특징짓는 혼종성-혈통의 흐름의 형식, 서로 다른 문화들, 내외부의 이민을 통해-을 이해할 수 있다. 역설과 우연으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삶 권력의 제작소로서 지배 권력은 체제에서 배제된 사회계층과 하위주체의 계급들의 삶을 관리하는데 치중하였다(Negri 2006, 173).

이렇게 식민 시대부터 온존된 역사적, 사회적 구조가 독립이후에도 오래 지속된다. 그리하여 민중[2]의 육체(무의식)속에 '구조화된 구조'로서 구어문화적 연대의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아르헨티나의 가우초로 상징

단계에서 유럽에서 감옥, 정신병원, 학교, 또는 공장을 통해 작동되었다. 들뢰즈에 의하면 통제사회에서 권력의 메카니즘은 항상 더 민주적이고 더 내재적이고 시민들의 머리와 육체 속에 산만하게 퍼져있다. 규범이 내면화되어있다. 통제사회는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작동된다. 이 수준에서 '삶 정치'는 완전히 '삶 권력'이 된다. '삶 권력'은 내면으로부터 해석하고 동의하고 재현하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권력의 형식이다(Negri 2006, 55, 주 1).

2) 민중이란 개념은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맥락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시대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대지주의 극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한 과두적 지배가 역사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역사적 경험과는 다른 맥락을 보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지배 대중을 민중으로 호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경우에도 국민문화는 이중성을 가지는데 민중문화는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 근거한 공동체 지향적인 구어문화의 성격을 가진다. 유럽 중심의 지배계급의 문화와는 다른 인식론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아무리 억압받아왔어도 그들의 실재의 문화이므로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Bonfil Batalla 2006, 101-111).

되는 민중문화가 가지는 음유시인적 구어문화의 성격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현대문학으로(Franco 1983, 22)평가되는 서사시집 '마르틴 피에로'(Martin Fierro)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아비투스는 개인의 육체 속에 무의식적으로 인지, 평가, 행동의 정신적, 육체적 프레임으로 내장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관계들의 총체(Bourdieu 2008, 41-42)이다. 이 연대의 아비투스가 작동하여 피케테로스 운동이 계급을 뛰어넘는 강한 사회적 연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첫째로 시위에 나선 가난한 실업자들은 처음부터 단지 생계의 보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케테로스 운동의 진행과정 중에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 방식은 다양한 일상생활의 요구에 근거한 문화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즉각적으로 독특한 사회적 연대 조직(예: 동네평의회)을 출현시켰다는 점이다. 둘째로 급박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시작한, 키치너 정부 집권이 시작된 2003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실천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주체를 출현시켰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조합을 만들어 파산한 기업을 자주적으로 경영하는 '노동자 복구기업'을 만든다. 필자가 아비투스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회적 구조가 집단을 통해 개인들의 육체에까지 각인되어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적 구조를 주조하는 일상적 삶의 성향을 만들기 때문이다. 즉, 개인과 집단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가장 '헐벗고 가난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적 연대와 대중의 정치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신 사회운동[3]과 크게 다르다. 자아의 욕

3) 유럽의 동성애자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등의 '신 사회운동'은 하버마스식의 의사소통의 원활을 통한 근대성의 지속적 발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산층 또는 중간계급 중심의 사회 민주주의적 체제 안에 안주한다는 비판을

망에 기초한 중간계급은 항상 애매하면서 그러므로 역동적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긍정, 연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단절한 세력은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즉,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이었다. 이 연대적 실천들이 보여주는 함축은 하나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재구성이 드러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연동하여 사회적 주체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본 논문은 후자에 중점을 둔 분석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체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하상섭 2007, 78)고 한다. 아비투스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홍성민의 연구가 두드러진다(홍성민 2000, 2009).

Ⅱ. 아비투스의 시각에서 본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

필자가 중요시하는 지점은 어떤 문화적 요인이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인내하지 않고 사회적 항의 또는 요구를 제기하는 사회운동으로 분출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사회관계를 연결 또는 분리시키는 힘을 만들어내는 일상적 실천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변혁의 동력 즉, 기존의 관계를 깨트리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오면서 유럽의 경우는 "대안 세계화 운동 역시.... 파편화, 전문화, 탈정치화 되거나 '신 사회운동'에 포섭됨으로써 분열되어가고 있다"(카치아피카스 2009, 11-12).

> 문화는 사회관계를 절합시키는 상상적, 상징적, 물질적 직물과 그 관계를 만들고 재생산하는 구조적, 일상적 실천의 총합으로 짜여진 일상생활의 차원을 가리킨다.....그람시식의 헤게모니적 의미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공간이다. .....**새로운 사회관계를 실천**하는 것: 더 많은 시민과 더 좋은 사회권을 정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을 의미한다. ....문화는 **새로운 주체들의 창조**이다. 공공성의 공간이 사유화되고 시민은 오직 소비능력으로 측정되는 현재의 맥락에서 문화의 기민한 가능성을 통해 **공동체적인 것의 재구성**의 통로를 제안하는 것은 긴급하다..... 총체적 사고에 대한 비판, 정전화된 모든 정체성 흔들기, 더 많은 경제적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절합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적 헤게모니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Vich 2005, 7- 8 강조는 필자).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의 시작은 실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거리의 항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공공성의 공간이 극단적으로 사유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일상적 삶의 방식에 기초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라 마딴사(La Matanza)지역의 5천명의 실업자와 주민들은 학교의 부족, 식품의 부족, 노동할 기회의 부족 등에 항의하기 위해 도로점거의 시위를 벌였다(Rauber 2002, 7). 그런데 이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왔다. 재봉, 제빵, 보육원, 학교구내식당, 보건소, 폭력 피해여성모임, 교회봉사모임, 교회 기초공동체, 동네 보상 청구위원회 등이 지역에서 조합의 형식으로 조직되었다(Rauber 2002, 5). 동시에 대안적인 새로운 사회관계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대도시에서 중산층의 조직운동이 실업자들과 함께 '동네평의회'등의 중심역할을 하였다(Almeyra 2005, 50). 전통적인 맑시즘의 시각에서는 사회적 주체로 계급을 상정하고 이를 대변하는 정당과 노조 등의 활동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가난한 실업자들(피케테로스)이 중심이 되었고 농민, 여성, 공무원

등의 중간계급이 함께 한 것이다.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파편화된 개별적 주체를 버리고 공동체적이고 평등지향적인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여 나갔다.

82년에 군부독재 정부가 물러났을 때 좌파를 포함한 일반 대중은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막아줄 민주정부로 알폰신을 택했지만 알폰신 정부는 '제한된 민주주의' 정부였다(Korol 2002, 3). 그런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여 고율의 인플레 등 커다란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국면에서 중산층과 빈곤층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는 메넴이 등장한 것이다. 알폰신 정부 말기의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페론주의자이자 우파 포퓰리스트[4] 정치가인 메넴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5] 1993년에 들어가면서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의 결과는 심각해진다. 결국,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실직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도로 점거를 통해 상품 유통을 막으면서 사용자들에게 저항을 하게 된다. 이처럼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방법이 이들의 전형적인 투쟁전략이 된다. 이런 전략이 충격을 준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의 결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회적 배제를 당하므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정치, 사회 공간이 없는 구조를 도로 점거를 통해 깨트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예로, 1993년에 퇴직 공무원들과 실업자들이 함께 사회적 항의와 투쟁을 벌이게 된다. 소위 '산티아

4)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모순적인 개념들을 포퓰리즘이란 하나의 기표로 부르는 상황에 대한 회의가 있을 정도이다(Weyland, 2001). 라틴 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의 성격은 유럽과 그 밖의 다른 지역의 그것과는 맥락이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자세한 언급은 자제한다.

5) 알폰신 정부 말기인 1988년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사실상 외채 지불 불능의 상황에 있었고 외국에 금융을 요청할 데도 없었다. 정부의 무능에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었다.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메넴 집권초기에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여도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메넴 정부를 시민들이 지지했다(Novaro y Palermo, in Misino y Suarez 1998,4).

고 소요'(Santiaguenazo) 가 벌어진 것이다. 가난한 실업자들이 사회적 항의의 최전선에 서고 이에 여성, 환경, 인권, 학생, 소농 및 조직 노동운동이 합류한다. 피케테로스의 투쟁전략이 노동운동의 한가운데로 영향을 미치는 등 전통적 의미의 노동운동과도 상호 연결이 지어진다(Rauber 2002, 1). 그리고 2001년 12월 파국이 온다. 소규모 저축자들의 은행 예금이 동결되는(Lobato 2003, 152) 상황이 오자 모든 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도시 중간계급의 상당수가 항의하게 된다. "모두 다 꺼져라" 라고, 주부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피켓을 든 실업자들을 지지한다. 피켓과 냄비의 투쟁이 하나가 되었다. 오랜만에 중간계급과 노동자의 연대가 이뤄지면서 지배 권력은 무너지고 이 같은 변혁적 헤게모니 우위의 정치지형에서 키치너가 대통령이 된다. 그 후 메넴정권에 의한 극단적인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재 국유화된다. 2001년과 2002년에 걸친 아르헨티나의 위기는 그때까지 사회의 경제적 게임 법칙의 소멸과 정치적 리더쉽의 전면적 파탄을 의미한다(Balian 2005, 11).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연대가 절정에 이른 구체적 표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직된 "동네평의회"(Asambleas Populares)[6]였다. 이 조직의 회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약 2십만 명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 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들을 포용하는 지지자들의 시위 규모는 약 5십만 명에 이르렀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일종의 학교와 같았다. 실업자들에 중간계급과 인권운동, 학생운동, 소농과 원주민 등 소수자

6) Asambleas Populares 는 '민중회의'가 아니라 '다중회의'로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안토니오 네그리가 자신의 책 『다중』(조정환 외 옮김 2008, 21)에서 밝힌바 있듯이, 상기 조직에 가입한 회원의 계급과 성향이 차별적이고 다양한 세력이 자주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비 권위적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Mirta Lobato가 쓴 *La protesta social en la Argentina* 2003, 152쪽에 의하면, '동네평의회' (las Asambleas Barriales)로 되어있다. 이 회의에서 다양하고 순발력 있는 투쟁 아이디어가 모였다.

운동, 여성운동의 세력까지 통합된 것이다(Rauber 2002, 5). 이 같은 강한 사회적 연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 라틴 아메리카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구어문화로부터 오는 연대의 아비투스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의 아비투스는 오랫동안 축적된 성향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실천(저항)을 조직하는 힘이다. 부르디외(2006, 312)에 의하면 아비투스는 실천과 실천의 지각을 조직하고 구조화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조화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구조화된 구조로 작동하여 개인의 육체에까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습관적 성향이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또한 구조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작동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역사적 국면에 따라 하나의 성향이 다른 것으로 전이된다.[7]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이 가지는 구어문화의 연대의 성향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억압이라는 역사, 사회적 국면이 바뀌면서 저항의 성향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바로 이 같은 아비투스의 전이 가능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친 일상에 젖은 노동자 계급의 고급예술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몰이해(아비투스)가 있다면,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코드와 연결하여 이 같은 미학적 인식의 차별성을 다른 국면으로 전이시켜 불평등한 물질적 세력관계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또는 몰이해)토록 하는데 아비투스가 기여한다(홍성민 2000, 188). 그러나, 아비투스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므로 유럽과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노동자계급의 아비투스도 유럽과는 다른 성향을 보

7) "실존의 조건에 근거하는 특정한 계급에 관련된 조건들이 아비투스를 생산해낸다. 지속적이면서 또 다른 것으로 전이될 수 있는 성향의 체계로서.."(홍성민 2000, 43 재인용).

일 수 있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대중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19세기에 유럽의 가난한 대중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민 온 대중들은 대부분이 노동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의 정치 엘리트들이 노동자 대중과 거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페론이즘이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페론주의는 반 제국주의적이었지만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민족주의자들이었고 아르헨티나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 반대했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적극 포용 또는 포섭했다.[8]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유럽과 같이 좌파정당들이 수렴한 것이 아니라 페론주의 당(Partido Justicialista)이 수렴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당들은 분산되고 약화되어간다. 이 같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을 통해 아르헨티나 노동자계급은 정치 엘리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요구를 강력히 분출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아비투스는 객관적으로 분류 가능한 실천들의 발생 원리인 동시에 이 실천들의 분류체계이기 때문이다(부르디외 2006, 311). 아비투스가 분류체계라는 말은 라틴아메리카의 부르주아(글쓰기 문화)와 프롤레타리아(구어문화)사이에 나타나는 선택적 취향의 분류가 일종의 차별화체계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아비투스는 선험적, 본질주의적 사유방식과 대립되는 발생론적, 맥락적 사유방식에 포함된다. 즉, 역사적, 사회적 관계와 조건을 중시하는 구조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피케테로스 운동의 사회적 저항이 품고 있는 세계관과 주관성의 변화

8) 정통 페론이즘은 중산층과 노동자계급을 함께 포용하는 다 계급 또는 무계급적 성격을 가졌다.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다양한 좌파 정당이 미국대사관과 함께 페론이즘 정치세력에 연합했었다. 이 당시 43년은 반파시즘 전선이 형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좌파정당의 페론이즘 합류는 그 후 아르헨티나 정치지형에서 좌파 정당을 취약하게 만든 '역사적 실수' 이었다고 평가한다(Korol 2002, 2).

를 지적하는데 중요한 점은 신자유주의가 심어준 사회경제, 문화적 해체와 개인들의 파편화를 극복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노동자와 실업자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인, 농민, 원주민 등 모든 사람이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다인종적, 상호문화적인 다양성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주체가 구성되어갔다(Rauber 2002, 3).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그동안의 사회과학의 프레임 안에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 계급에 비해 개인은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개인을 고려하는 아비투스 개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해석하는데 깊은 함의를 가진다. 여기에서, 개인이 중요한가? 사회집단이 중요한가? 등의 이분법적 질문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사회운동을 해석하는데 개인과 사회구조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 아비투스 이론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육체 속에 사회구조가 동시에 녹아있다. 부르디외는 '욕망하는 주체' 혹은 '무의식적 주체'의 습관적 행동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행동이 객관적 사회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홍성민 2009, 248-249 재인용).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사람들도 집단적으로 사회적 항의를 격렬하게 보였지만 선험적 계급의식으로 뭉쳐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점차 집단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거부를 선험적, 이념적으로 내세우는 좌파 노동 조직은 초기에 피케테로스의 거리 시위에 거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도 1997년부터는 달라졌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복지 프로젝트에 냉소적이었던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업자들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대중적 요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계급이 아닌 개인들에서 출발한 새로운 사회운동세력이 전통적 좌파세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Rauber 2002, 11).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저항의 과정 중에 새로운 사회적 주체(예:

동네평의회, 노동자 복구기업 등)가 출현한 것은 경제적 요인 외에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오는 구조화된 구조로서 무의식적 연대의 아비투스가 작동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리의 민주주의'의 시위와 함께 곧바로 새로운 사회적 주체가 형성된 것을 다른 맥락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파편화된 개인들로 남지 않고 강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욱 극단화시킨 불평등한 사회관계에 집단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Ⅲ. 구어문화에 근거한 사회적 연대와 '노동자 복구기업'의 출현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들은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을 망라하여 무의식적으로 구어문화의 성향을 가진다. 즉, 라틴 아메리카에는 두 개의 문화가 있음을 이미 앞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라틴 아메리카의 대중은 지배계급과 달리 구어문화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하게 가져온 것이다. 구어문화는 강한 사회적 연대성을 지닌다.

> 구어문화에서 사고와 표현은 다음의 경향을 가진다. 1) 종속적이기 보다는 누적적이다. 2) 분석적이기 보다는 누적적이다. 3) 반복적이다. 4)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5) 생명력 있는 인간세계에 가깝다. 6) 객관적으로 고립되기보다는 참여적, 연대적이다.... 구어문화에서 배우다 또는 안다는 의미는 공동체적 동일성을 획득함을 뜻한다(Ong 1987, 43-51).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 지배계급은 글쓰기 문화 그리고 피지배계급은 구어문화로 문화의 성향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는 권력과 주체의

상황에 따른 변증법적 국면에 따라 결정적인 저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글쓰기가 근대성의 상징이라면 구어문화는 근대성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이후 근대성은 글쓰기와 자아의 이야기로 특징지어진다면(홍성민 2000, 141),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8,9세기를 거치면서 일반 대중에 대한 글쓰기의 근대적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근대성에 포섭되지 않았다. 월터 웡(1987, 38-62)에 의하면, 구어문화에서는 말이 가지는 신성한 힘을 믿고 기억과 인간적 생동감을 중시하며 공동체 참여적이고 상호 연대적인 흐름을 보인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도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중의 하나로 구어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 대중문화는 참여문화고 민주적이다. 특히 구어문화를 통해 전달된다. 그런데 기술발전에 의해 점점 대중문화는 그 공간이 광장, 카페, 무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잡담하는 곳, 시장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Galeano 1989, 365).

그 원초적 모델은 원주민 공동체에 있는데 오늘날까지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럽이나 우리사회에 비해 자본주의의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거꾸로 사회적 연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시장은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 시장은 전통을 침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생산하는 모든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시장은 사회적 고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주체사이의 진정한 연대는 의미의 치열한 소통의 과정에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만족이나 혹은 좌절을 만들어내지 결코 의미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시장은 사회적 혁신을 생성하지 못한다. 왜냐면 혁신은 기능적이지 않은 연대와

> 차이, 저항과 반란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가 아는 것 :혁신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소득을 만드는 것이다(Martin-Barbero 2002, 10).

아르헨티나의 경우, 메넴정부의 극단적 경제 정책이 중간계급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같은 사회적 연대의 잠재적 아비투스를 자극하여 노동자 계급과 함께 더욱 강한 사회적 항의로 움직이게 한 것이다. 이들에 의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새로운 일상적 '삶의 방식'의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그 핵심이 중층적, 복합적인 연대이다. 이 같은 복합적인 연대 또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연대를 미시적,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들이 과거와 달리 수직적, 위계적이지 않았다는데 수평적이었다는데 주목해야한다. 남미 특유의 음악과 춤을 매개로 무의식적인 연대의 힘을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으로 넓혀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실업자들의 거리 시위운동은 단순한 시위로 끝난 것이 아니다. 교사, 학생들과의 생태운동을 고리로 한 연대, 동네 공동체를 위한 인문학 교실 운영 등의 문화운동이 함께 이루어졌다(Balian 2005, 36).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이 새로운 상상력을 개척하였다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 3의 길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중을 개별적으로 소비자로만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과거의 패러다임인 국가주도의 발전주의 전략에 기대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내부에서부터 개별자가 아닌 네트웍적 조합운동을 통한 새로운 집단적 주체화의 형성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창조까지 지향하였다(Negri 2006, 70).[9] 그러므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9) 네그리는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을 다중으로 해석하며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득권층에 의해 가장 억압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중시한다. 즉, 서구적 시각의 개인적 인권을 넘어선 사회적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운동과 정부의 지속적이면서 간헐적인 연결과 단절을 통해 맑시즘의 유토피아인 꼬뮨주의의 현실적

조합운동인 '노동자 복구기업'(Universidad de Buenos Aires 2005, 36- 59)을 전통적인 맑시즘적 시각이 아니라 우애와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2003년 이후, 파산하여 기업주가 문을 닫은 공장을 실직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점거한 뒤, 정부 지원을 거쳐 '노동자 복구기업' 또는 '자주 관리'(autogestion)의 조합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주목할 만점은 이들 실직한 노동자들이 개별적 대응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공동체적 요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경제위기에 저항하던 시기의 아르헨티나의 전반적 사회적 연대의 맥락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국가들에서의 경영주에 대한 국민세금을 통한 지원을 통한 기업 복구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2005년 현재, '노동자 복구기업'은 161개이고 업종별로는 기계와 가구공업이 많다(98). 이들 기업은 2001년 12월의 경제위기 이후 아르헨티나 사회의 많은 부분에 새로운 '집단의식'의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전에 일반 노동자들은 실직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당시 사회적 항의를 함께 하면서 사회운동에 실직자, 노동자 복구기업, 일반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 즉,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내언론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경제위기의 대안들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이 같은 조합운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형성에 있음과 함께 국가의 기능과 공공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자신이 해야 할 공공성 강화의 정책을 방기할 경우, 이를 사회운동세력과 가난한 사람들 즉, 사회적 주체가 떠맡아야 함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의 실천적 사례가 극단적 신자유주의체제의 위기 극복이후 단순히 과거의 국가중심 발전주의의 귀환이 대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신

추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Negri 2006, 242-243). 그러나, 꼬뮨주의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목적이 아니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자유주의 체제하에서는 예전의 위로부터의 국가중심 성장전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맑시즘 또한 국가중심 발전주의의 다른 얼굴이란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강조하는 노동자 복구기업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Martinez와 Vocos(2002)에 의하면, 노동자 복구기업의 새로운 조합운동의 의미는 첫째, 세계적인 차원의 현 단계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본축적의 증대 자체가 만들어내는 노동력의 추방(실업)외에도 일하는 노동자의 프롤레타리아화 (소위 말하는 워킹푸어 현상)와 철저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상업, 금융 등 새로운 분야에서까지의 철저한 침투(중, 대형 마트의 침투로 인한 동네 수퍼의 몰락)등의 현상에 대한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어적 수단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위기에 대한 투쟁적 저항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당시 생계유지를 위해, 각개 가족의 개인적 방어만이 아니라 식품을 사더라도 '공동구매'를 하였고 식품의 부족 외에도 교육, 건강 등 개인적 해결이 어려운 부분을 공동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Martinez and Vocos 2002, 4). 두 번째, 이들의 조합 운동 방식이 새롭다는 의미는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품회사의 경우 다른 자주 경영 기업의 구내식당에의 음식 공급 등 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을 연대에 두고, 자주 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조합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조합 외부의 동네 주민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중시하는 등 '비자본주의적'(Rebon 2004, 11)[10]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사회경제'[11]라는 용어로 해석

10) 자본주의는 압도적 우위와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회현실을 생각하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억압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더욱 힘들게 하였다; 모든 다른 현실들 (소농의 생존경제, 생물 다양성 경제, 제3세계의 저항형식들, 조합운동, 작은 장소의 창의적 제안들)을 자본주의에 반대, 종속 또는 보완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았지 의미가 있는 대안경제의 원천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방식이 아니라[12]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부터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 구조적 변혁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강한 것이 두드러진다. 특히, 정규노조 조직, 계급 노동운동 조직, 정당, 동네 평의회, 피케테로스 운동조직 등의 다양한 피지배계급의 강력한 연대와 단합이 주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세 번째, 비록 규모가 작은 기업이지만 기업경영에는 경영자와 관리자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 만에 의해 기업이 유지됨으로써 노동자들 스스로의 자존감[13]도 높아졌다. 네 번째, 본 연구의 시각에

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세계화는 비자본주의 경제의 다른 형식들(여성, 월급쟁이들, 농민, 조합운동, 소농운동)에 대한 폭력이고 죽음을 의미한다(Escobar 2000, 126).

11) 라틴 아메리카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사회 경제'운동은 매우 활발하다. 스페인 사회경제 기업연합회의 회장인 까르멘 꼬모스 또바르에 의하면 스페인의 4명중 한명의 노동자는 '사회경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경제적 기업은 약 오만개 이상이 되고 있다. 사회경제 기업이란 기업의 소득과 효율성이외에 사회적 연대와 책임성을 강조한다. 사회경제란 의미는 자본주의 체제를 긍정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개혁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http://www.revistafusion.com/20090429871/Nacional/Tema/economia-social-contra-la-crisis.htm 참조.

12)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자율 경영' 방식의 새로운 조합운동을 선보인 것은 사회주의적 수단인 '생산과정의 국유화'가 아니라 '생산과정의 사회화'의 하나의 프로젝트로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 새로운 집단적 행위자'로 출현한 것이 의미가 크다. "공공의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는 사기업들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재의 세계화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일종의 생산과정의 직접적 사회화에 있다"(Zizek 2001, 373).

13) 노동자 복구기업의 한 조합원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다. "가끔 과학적 분석은 어느 동료의 변화를 드러내주지 못한다. 그는 55세에 사는 것이 지쳐 거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여 마치 텅 빈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다...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것(노동자 복구기업)이 나올 때 까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몰랐다.....그들은 스스로의 문제에 해답을 주었고 이제 기쁨이 올라오고 있다"(Gracia and Cavaliere 2007, 18).

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격으로, 노동자 복구기업이 생산과 소득의 차원을 넘는 전략적 선택으로 경제위기의 투쟁에서 만들어진 연대의 형식을 넓혀가며 일반 대중과의 연대의 핵심적 기능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의 현장 안에서 문화 공간, 주민 도서관, 주택건설의 프로젝트 등의 아젠다가 출현하고 있다(Martinez and Vocos 2002, 5; Rebon 2004, 10) 바로 이 같은 집단적 실천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넓은 사회적 연대의 아비투스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노동자 복구공장 전국 운동'(Movimiento Nacional de Fabricas Recuperadas por sus Trabajadores, MNFRT)이라는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이를 노동자 투쟁의 21세기적 형식으로 호명하기도 한다(Gracia and Cavaliere 2007, 155-156). 신자유주의적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계급을 뛰어넘어 권력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비자본주의적 조합운동을 펼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에 의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피지배계급의 육체 속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사실은 오인)한다. 부르디외는 이를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른다(홍성민 2000, 159 재인용). 그렇다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변혁을 설명할 수 없단 말인가? 부르디외는 지배계급이 행사하는 상징적 권력(폭력)의 문제는 개인들의 의식밑바닥을 흐르는 성향 즉, 아비투스의 문제와 깊게 관련되므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더 이상 개별적 주체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 속에서 찾지 않는다(홍성민 2000, 187 재인용). 이점에서 부르디외는 맑스적[1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개인과 사회구조의 분리가 아니라 아비투스 이론은 변증법적으로 양자

14) 맑스는 그룬디세에서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는 개인들이 잇는 연결과 관계들의 총합을 표현한다"(Bourdieu 2008, 41 재인용)고 한다.

의 긴밀한 연계를 주장하면서도 사회변혁의 동학이 분명 개인의 실천력보다는 사회적 조건화 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한다(87).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래된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어문화를 집단적, 무의식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특정한 계급은 식민지 시대이후 억압받아온 노동자, 농민 등의 대중이다. 즉, 대지주 등의 과두적 기득권층은 그들의 유럽문화 지향적 아비투스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 메스티소 등의 대중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족국가/자본주의체제 발전의 뒤처짐과 부르디외가 말하는 상징적 권력(문화, 언어)의 취약함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전통문화인 구어문화의 생명력을 오히려 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도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은 저항의 에너지도 고갈되어 버린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어문화로부터 파생된 무의식적 집단적 연대의 아비투스가 작동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피지배 계급이 매우 가난하지만 아주 강한 사회적 항의를 보인다. 강력한 사회적 항의에 대해 지배계급이 응대할 것이란 기대가 피지배계급의 육체 속에 즉, 집단적 무의식속에 하나의 성향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맥락은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지 초기부터 문화적 혼종성의 독특한 맥락 안에서 탈 근대적 '삶 권력'이 작동되어왔기 때문이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변혁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부르디외의 경우 새로운 사회변혁 전략으로 '상징의 혁명'을 내세운다(홍성민 2000, 29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출현한 '동네평의회'와 '노동자 복구기업'을 통해 새로운 상징 권력을 보여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 공공성의 이슈들을 마치 지방의회보다 더 활발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직접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는 자주경영의 모습은 새로운 사회관계의 출현을 보여준 것이다. 랑시에르(2008, 132)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영속은 시민주체들의 이동성, 참여의 장소와 형태들을 이전시키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파업당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공장을 관리한 잠재력을 이동시켜 '자주관리'의 형태를 실현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신자유주의 체제는 대중에게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삶의 양식과 소비주의 문화를 장려하고 탈정치화 시킨다. 아르헨티나에서도 90년대 이후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와 중간계급 개개인들이 자신의 지역 내 존재 구속성과 지역 안에서의 전통적인 연대를 해체하고 파편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은 기존 정당체제에 강한 회의와 거부를 보였지만 탈정치화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강한 연대적 저항을 보이며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Edme 2008, 2). 즉, 가난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계급을 넘어 중간계급과 공유하고 있던 연대의 아비투스가 드러난 것이다.

Ⅳ. 결론

19세기까지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80%이상이 문맹이었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와 진 프랑코도 지적하듯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와 사회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구어적 전통의 시골문화와 소수의 유럽적 감수성의 도시문화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월터 웡이 지적하듯이 구어문화는 강한 공동체적 연대성을 가진다. 16세기에 유럽세력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할 당시 근대국가체제가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

로 전락한 라틴아메리카에는 다양한 혈연적, 문화적 혼종성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이 당시의 지배 권력의 체제는 근대적, 훈육적 '삶 권력'이 아니라 탈 근대적인 느슨한 관리의 '삶 권력'이었음을 네그리가 지적하고 있다. 원주민들을 지배체제에서 아예 배제하고 피지배계급의 삶을 '관리' 하는 체제였다. 18세기 이후 근대성은 글쓰기와 자아의 이야기로 특징지어진다면 이들 라틴아메리카의 피지배계급에게는 오랫동안 근대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어문화에서 오는 말이 가지는 신성한 힘을 믿고 기억과 인간적 생동감, 공동체적인 연대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 구조는 부르디외가 지적하듯이 '구조화된 구조'가 되어 이들 계급의 개인들의 육체에까지 무의식적으로 각인된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아비투스이다. 아르헨티나는 주로 유럽의 가난한 대중의 이민을 통해 만들어진 아주 '대중적인' 사회이다. 이들 대중의 요구를 중시한 정치가가 바로 페론이기도 하다. 즉, 지배계급에게 강력한 대중적 요구를 제기하는 성향이 아르헨티나의 노동자계급에게 역사적으로 주조된 것이다. 이들 노동자계급은 메넴정부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계에 몰리자 다양한 유형의 중간계급과 연대하여 격렬한 사회적 항의를 제기한다. 이 같은 사회적 항의의 과정 중에 연대의 아비투스가 작동하였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곧바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사회연대조직(예: 동네평의회)때문이다. 즉, 실업자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중간계급, 학생운동, 인권운동, 소농과 원주민 등과의 강력한 연대조직을 결성하여 일상적 삶의 방식 즉 문화에 기초한 공공적 요구들 (예: 교육, 건강 등)을 제기한다. 이는 2003년부터 파산하여 기업주가 문을 닫은 공장을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국가에게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요구한 '노동자 복구기업'의 경우도 단순히 실직하지 않기 위한 조합운동

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기업의 현장을 문화 공간, 주민 도서관, 주택건설의 프로젝트 등의 사회적 연대를 강하게 보인다.

신자유주의체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재구성과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출현인데 후자의 맥락에서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맑시즘 이론과 달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은 개인과 집단을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개인의 무의식적 성향이면서 동시에 사회관계에 의해 구조화된 구조이므로 집단 또는 계급에 따라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현 단계 사회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하게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맥락을 라틴아메리카에 고유한 연대의 아비투스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래,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은 사회적 불평등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육체 속에 각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쉽게 기존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와 성향이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의 저항의 맥락을 아비투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아비투스 개념이 선험적인 본질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조건을 중시하는 맥락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독특한 역사, 사회적 구조에서 오는 구어문화로 인해 형성된 연대의 아비투스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주체화는 대중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출발점이 아르헨티나의 경우, 바로 피케테로스로 불리는 실업자등 가난한 사람들의 대중적 요구로부터였다. 푸코와 부르디외가 주장하듯이 사회변혁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비투스의 성격 규명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투스가 사회적 범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무의식의 개인적, 육체적 내면화의 과정이란 점이다. 다시 말해, 개별적 주체의 의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가 변혁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적 관계와 구조가 개인들의 무의식에까지 내장시킨 집단적 성향이 분출할 때 강력한 사회 변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그동안의 사회과학의 프레임 안에서 국가, 시민사회, 정치사회, 사회계급에 비해 중요시되지 않았던 개인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아비투스 개념은 개인을 철저히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운동과 사회변혁을 해석하는데 깊은 함의를 가진다. 아르헨티나의 대중은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적 배분과 생산의 생태학'을 지키는 노력들, 예를 들어, 조합운동-'노동자 복구기업'-등의 대안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이들의 육체 속에 내장되었던 구어 문화의 연대 성향을 통해 회복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2008),『다중』, 조정환 외 옮김, 세종서적.

쟈크 랑시에르(2008),『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조지 카치아피카스(2009),『신좌파의 상상력』, 이재원 역, 난장.

피에르 부르디외(2006),『구별 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최종철 역, 새 물결.

하상섭(2007),『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지역연구 시리즈 07-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성민(2000),『문화와 아비투스』, 나남.

_____(2009),『문화정치학 서설』, 나남.

Almeyra Casares, Guillermo(2005), "Los movimientos sociales en Argentina, 1990-2005", *Argumentos,* no. especial 48-49,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Xochimilco, México, http://redalyc.uaemex.mx, pp.43-

68.

Balian de Tagtachian, Beatriz(2005), “Desocupación, pobreza y piquetes en Argentina”, *Diálogo Político,* vol.22, No.3, http://www.kas.de/wf/doc/kas_7492-544-4-30.pdf, pp.11-42.

Bonfil Batalla, Guillermo(2006), *México profundo,* México: Random House Mondadori.

Bourdieu, Pierre(2008), *Una invitación a la sociología reflexiva*, Buenos Aires: SigloXXI.

Edme, Roody(2008), “America Latina: una transicion entre la ruptura y el establecimiento de un modelo”, *OSAL*, Buenos Aires: CLACSO, año VIII, no. 23, http://sala.clacso.edu.ar/gsdl252/cgi-bin/library?e=q-000-00…0busca-busca%2csecre, pp.1-4.

Escobar, Arturo(2000), “el lugar de la naturaleza y la naturaleza del lugar : ¿ globalización o postdesarrollo ?”, in Edgardo Lander(comp.), *La colonialidad del saber : eurocentrismo y con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 CLACSO, pp.113-143.

Facultad de Filosofia y Letras-UBA(2005), *Las empresas recuperada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UBA.

Fell, Claude(2009), *José Vasconcelos Los Años del Aguila,* México: UNAM.

Franco, Jean(1983), *La Cultura moderna en América Latina*, México : Grijalbo.

Galeano, Eduardo(1989), *Nosotros decimos NO,* México: Siglo XXI.

Gracia, Amalia and Cavaliere, Sandra(2007), “Repertorios en Fábrica, La experiencia de recuperación fabril en Argentina, 2000-2006”, *Estudios Sociológicos* Vol. XXV, no. 73, enero-abril 2007, http://www.iisg.nl/

labouragain/documents/gracia-cavaliere.pdf, pp.155-186.

Korol, Claudia(2002), "La Izquierda Argentina y su larga marcha", *Alternativa, no. 15,* Santiago : ICAL, pp.1-6.

Lobato, Mirta(2003), *La protesta social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Cfe.

Martin-Barbero, Jesús(2002), "La globalización en clave cultural : una mirada latinoamericana", Globalisme et Pluralisme, colloque international, Montreal 22-27 de abril, 2002, http://www.er.uqam.ca/nobel/gricis/actes/bogues/Barbero.pdf, pp.1-24.

Martinez, Oscar and Vocos, Federico(2002), "Las Empresas Recuperadas por los Trabajadores y el Movimiento Obrero", *Produciendo Realidad, Las Empresas Comunitarias,* Buenos Aires: Topia, http://www.iisg.nl/labouragain/documents/martinez_vocos.pdf, pp.1-6.

Misino, Florencia and Suarez Cao, Julieta(1998), "Menem, ¿un ideal de Principe maquiaveliano?", http://monografias.com/trabajos901/maquiavelo-gestion-menemista/maquiavelo-gestion-menemista.shtml, pp.1-21.

Negri, Antonio(2006), *GlobAL,* Buenos Aires: Paidós.

Ong, Walter(1987), *Oralidad y escritura* México: Cfe.

Rauber, Isabel(2002), "Piquetes y piqueteros en la Argentina de la crisis," http://www.urbared.ungs.edu.ar/textos/piquetes.doc, pp.1-34.

Rebón, Julián(2004), "Una empresa de trabajadores Apuntes acerca de los determinantes de las empresas recuperadas", Instituto Gino Germani de la Universidad de Buenos Aires-CONICET, http://www.iisg.nl/labouragain/documents/rebon.pdf, pp.1-12.

Vich, Victor(2005), "Las políticas culturales en debate : lo intercultural, lo subalterno y la dimensión universalista", *El estado está de vuelta :*

desigualdad, diversidad y democracia, Lima: IEP, pp.1-9.

Weyland, Kurt(2001), "Clarifying a Contested Concept", *Comparative Politics*, vol.34, no.1, pp.1-21.

Zizek, Slavoj(2001), *El espinoso sujeto,* Buenos Aires: Paidós.

논문투고일자: 2010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10일